

# 성인애착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백성은, 한지혜\*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Non-Suicidal Self-Injuries: The Mediation Effects of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ung-Eun Baek, Ji-Hye Han\*  
Department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Dong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사이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표집한 11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정서조절 곤란, 비자살적 자해 빈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후 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version 4.2(Model 4)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애착불안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착불안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애착회피의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그리고 애착회피와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왔다. 본 연구 결과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차별적 경로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 정서조절 곤란이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20대 초기의 비자살적 자해 발생을 줄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non-suicidal self-injury by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adult attach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 data set including 110 college students was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mediation analysis by using PROCESS Macro version 4.2 (Model 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anxiety on non-suicidal self-injury was not significant. Howev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non-suicidal self-injury,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dysregulation was significant. Second,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avoidance on non-suicidal self-injury was significant,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non-suicidal self-injury,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dysregulation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ffect non-suicidal self-injury through differential pathways, and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motion dysregulation.

**Keywords** : Non-suicidal Self-injury,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Emotion Dysregulation, College Student

---

\*Corresponding Author : Ji-Hye Han(Dongyang University)

email: annie1899@naver.com

Received November 30, 2023

Accepted February 6, 2024

Revised December 29, 2023

Published February 29,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DSM-5[1]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conditions for further study) 범주로 분류된 비자살적 자해는 죽고자하는 의도 없이 일부러 자신의 신체를 칼로 긁고, 불로 지지고, 과도하게 미는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2]된다. 진단기준은 지난 12달 동안 적어도 5일 이상 자살 의도는 없이 경도 또는 중등도의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해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이때 행동은 문신, 피어싱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거나, 손톱 뜯기 등과 같이 사소한 것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해행동이 안심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3] 측면이 있다. 자살시도 즉, 죽고자하는 의도를 가지는 자해의 경우 한번에 치명적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자살적 자해는 비록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며[4]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해행동은 자살 충동과 관련되며[5] 만성화 시 자살로 발전할 수 있어[6]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집단의 자해행동은 잘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7], 경계선 성격장애 혹은 우울장애 등 여타의 정신병리에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비임상 표본 대상의 자해행동 작용원리에 대한 연구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2]. 2022 응급의료 통계연보[8]에 따르면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 중 20대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고,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살·자해에 대해 제공한 지원서비스는 2018년에 비해 76.6% 증가한[9] 것으로 나타나 국내 초기성인기 자해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비자살적자해의 원인에 대한 통합모델[2]에 따르면 원거리 위험요인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10], 아동기 학대나 방임[11] 등의 비수용적 양육환경이 개인 내적 취약성을 유발하고, 그 결과 개인이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됨을 주장한다. 그 중 선행연구에서 주요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비수용적 양육환경과 관련된 불안정 애착[12]이다.

불안정 애착은 주양육자의 무관심, 거부적 혹은 비일

관적 반응을 유아가 반복 경험함에 따라 형성하게 된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다. 이 중 애착불안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관계에 집착하며 타인과의 근접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13]. 애착회피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자신의 독립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방어적 태도를[14]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불안정 애착과 비자살적 자해 관련 연구에서 두 가지 애착 차원을 분리해 살펴본 주요결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임상집단 대상의 연구에서 애착불안이 대인간 민감성을 통해 자해 행동을 예측했다[15]. 불안애착의 개인은 타인의 거절에 민감하고 비주장적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해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타인의 거절을 유발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애착의 개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아들은 차라리 자신의 감정을 혼자 처리하는 즉, 자해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15]. 애착회피의 경우 자해는 정서경험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 Model: EAM)에 근거한 부적 강화 사이클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6,17]. 즉, 자해를 하는 회피애착의 개인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자신의 심적 괴로움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해라는 부적응적 시도를 하고, 그로 인한 부정 정서의 일시적 완화 경험이 이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애착유형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는 애착의 하위 차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국내 연구는 주로 아동기 외상, 초기 부적응 도식과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를 다룬다. 외상 혹은 부적응적 도식이 초기 양육자와의 부정적 관계경험에서 비롯된 구성개념과 결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불안정 애착 역시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 있을 것임을 예상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의 두 차원을 구분하고 그 각각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불안정 애착의 개인은 좌절상황에서 자위(自慰) 능력 부족,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관련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행사하게 되어 비자살적 자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18]. 인간은 성장해감에 따라 행동적 정서조절 전략 보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19].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적응적 전략(예, 수용, 해결중심사고 등)과 부적응적 전략(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부적응적 전략이 불안정 애착[20], 비자살적 자해[21]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밝

혀졌다. 애착 하위 차원별로 살펴보면 애착불안의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외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좌절을 이겨내고자 할 수 있다. 이에 버림 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우선시 되어 대상의 관심을 얻거나 협박의 도구로 비자살적 자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착회피의 개인은 대상에게 친밀함,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22]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듯 성인 애착과 비자살적 자해, 정서조절 곤란 사이 관련성이 시사되지만, 애착유형별로 비자살적 자해와의 관계와 그 관계 사이 정서조절 곤란의 역할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성인 애착유형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어떤 역할을 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애착불안은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로 자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애착회피가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로 자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방법

### 2.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경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수집한 총 124명 자료 중 50%를 초과해 미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화된 자해가능 평가지에 의거해 비자살적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11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2023년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에게는 설문 전 본 연구에 대한 설명과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참여 가능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고지했다. 또 참여자가 자해와 관련해 불편감을 느낄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 평균은 21.55세( $SD=2.25$ ), 연령대별 분포는 20대 초반 84명(76.4%), 20대 중반 20명(18.2%), 20대 후반 6명(5.5%)이었다.

### 2.2 측정 도구

#### 2.2.1 성인애착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을 김성현[23]이 한국

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애착불안(18문항)과 애착회피(18문항)를 측정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type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차례로 .93, .91로 나왔다.

#### 2.2.2 정서조절 곤란

조용래[24]가 표준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type 척도이며, 총 36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왔다.

#### 2.2.3 비자살적 자해 빈도

권혁진[25]이 표준화한 자해 가능 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FASM)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비자살적 자해의 방법 및 빈도, 자해 관련 치료 여부, 자해행동 관련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비자살적 자해 빈도를 측정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2로 확인되었다.

### 2.3 분석 방법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 연구문제 검증에 앞선 기초조사로 주요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왜도 및 첨도 값을 통해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주 연구문제 검증 과정이 포함된 매개 분석에는 SPSS Process Macro 4.1 model 4를 적용하였다. 간접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의 신뢰구간(Bootstrap Confidence Interval)로 확인하였다.

## 3. 결과

###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주 연구문제 검증 전 기초조사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행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애착불안의 평균은 2.46( $SD=.74$ ), 애착회피의 평균은 2.76( $SD=.68$ )로 나왔다. 정서조절 곤란 평균은 2.76( $SD=.50$ ), 비자살적 자해 평균은 1.35( $SD=.72$ )로 나왔다. 모든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이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으로[26] 나

와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는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1	2	3	4
1	1.00			
2	.22*	1.00		
3	.67**	.33**	1.00	
4	.31**	.32**	.37**	1.00
<i>M</i>	2.46	2.76	2.76	1.35
<i>SD</i>	.74	.68	.50	.72
skewness	.44	.18	.48	3.11
kurtosis	-.34	.01	-.31	8.73

1: Attachment Anxiety, 2: Attachment Avoidance, 3: Emotion Dysregulation, 4: Non-Suicidal Self-Injury, \*\* $p < .01$ , \* $p < .05$

### 3.2 매개효과 검증

우선 Model 1은 애착불안, 정서조절 곤란, 비자살적 자해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Table 2와 Fig. 1을 보면, 애착불안은 정서조절 곤란( $\beta = .67, p < .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정서조절 곤란( $\beta = .29, p < .05$ )의 직접효과도 유의하게 나왔다.

Table 2. Path estimates in the mediation models

model	y	x	B	SE	t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1	2	1	.45	.05	9.23**	.36	.55
	3	1	.11	.12	.91	-.13	.34
		2	.43	.18	2.44**	.08	.77
2	2	1	.24	.07	3.60**	.11	.38
	3	1	.24	.10	2.36**	.04	.43
		2	.43	.14	3.16**	.16	.70

1: Attachment Avoidance, 2: Emotion Dysregulation, 3: Non-Suicidal Self-Injury, x= dependent variable, y= independent variable, \*\*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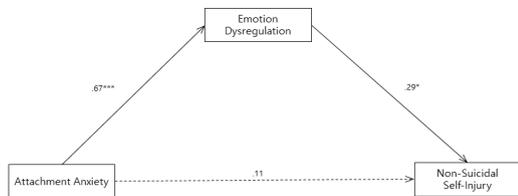


Fig. 1. The path coefficients of the mediation mod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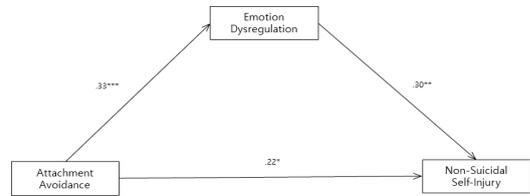


Fig. 2. The path coefficients of the mediation model 2

Model 2는 애착회피, 정서조절 곤란, 비자살적 자해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Table 2와 Fig. 2를 보면, 애착회피는 정서조절곤란( $\beta = .33, p < .001$ )과 비자살적 자해행동( $\beta = .22, p < .05$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정서조절 곤란( $\beta = .30, p < .05$ )의 직접효과도 유의하게 나왔다.

Table 3을 보면,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애착불안 ( $B = .30, p < .01$ ) 및 애착회피( $B = .34, p < .01$ ) 각각의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3. Total effect and direct effect of the models

model	Effect	B	SE	t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1	total	.30	.09	3.32**	.12	.48
	direct	.11	.12	.91	-.13	.34
2	total	.34	.10	3.46**	.14	.53
	direct	.24	.10	2.36**	.04	.43

\*\* $p < .01$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Table 4에 제시하였는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애착불안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B = .19, 99\%CI = .07, .37$ ), 애착회피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B = .10, 99\%CI = .03, .22$ )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the results using bootstrapping

model	B	SE	Sig.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1	.19	.08	Sig.	.07	.37
2	.10	.05	Sig.	.03	.22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110명의 대학생 자료를 분석하여 성인애착과 비자살적자해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 사이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즉 정서조절 곤란은 애착불안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는 양육자가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비자살적 자해 경향이 높을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27]와 일치한다. 자녀는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하지만 양육자 스스로가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몰입되어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달래주는 것에 한계를 느낄 경우 자녀는 부정적 감정을 달래고 조절하는 반응을 내재화하지 못하게 된다[28]. 이에 자녀는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버림받아 홀로 남는 것 즉, 유기불안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29]. 관련 연구[23]에서도 이들이 부정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할 수 있음을 지목한다. 즉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은 사회적 기술은 부족하고 상대를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욕구는 커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해라는 부적응적 시도를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16].

둘째, 애착회피가 비자살적 자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사이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왔다. 즉, 정서조절 곤란은 애착회피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해 비자살적 자해를 더 빈번하게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18]와 의미상 유사한 결과이다. 회피 애착 유형은 타인의 관심이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경험할 수 있는 실망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괴로움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27]. 이들은 어린 시절 주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를 당했던 경험과 관련해 타인을 믿는 것은 부질없다는 신념을 가진다. 또한 타인의 의도에 대해 늘 의심을 품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난과 역경을 분담하기보다 억제, 거리두기 등의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혼자 해결하는 과도한 자기 의존성을 지

닌다. 때문에 겉으로는 스스로의 행동을 잘 통제하거나 다소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29]. 관련 연구[30]에서도 애착 회피 경향의 개인은 정서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강렬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정서 억제성(emotional cutoff)을 드러내며 이러한 과소 반응성이 애착 회피와 우울 사이를 매개함을 언급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억제, 거리두기 등의 방식을 통해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게 되면 통제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기보다 결국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폭될[29,30] 수 있다. 비자살적 자해충동을 경험하는 회피 애착 유형의 사람들도 이에 대해 주변과 나누고 조력을 얻고 싶지만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인데다[31], 주변의 도움 요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야 하기에 수치심 감수라는 이중고의 부담이 있어 스스로 끝을 내는 방법인 자해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32].

따라서 상담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불안정 애착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자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 보다 자해를 이끄는 인지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해를 이끄는 자기 비난, 수치심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 맞춘 상담기법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적 경험은 그 자체로 해롭지는 않으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려는 노력에 의해 심리적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33]. 마음챙김은 고통의 거부 보다 수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자각하는 과정을 통해 부적응적인 반응을 감소시킨다[33].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찰능력이 증가되어 인지변화, 자기 조절능력이 촉진될 수 있기에 마음챙김 기반 치료가 개인의 방향으로 적합해 보인다. 동시에 내담자의 대인관계 기술 훈련에도 초점을 두어,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불안정 애착의 내담자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부정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도움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비임상 표집의 자해 양상은 잘 드러나지 않고[7] 실제 본 연구에서도 대다수 참여자가 자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는 부정하는 응답을 했으나 자해 행동을 주관식으로 기입해달라는 문항에는 '목 조르기', '칼로 자해' 등으로 기입하는 양상이 나타나 이 경우 자해 집단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응답하거나 방어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고려해 자기보고식 척도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추가하는 등 변인의 측정법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References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DOI: <https://doi.org/10.1176/appi.books.9780890425596>
- [2] M. K. Nock, "Why do people hurt themselves? New insights into the nature and functions of self-inju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18, No2, pp.78-83, 2009.
- [3] D. G. Lee, G. A. Ham, B. H. Bae, "Adolescents' Self-Injurious Behaviors: Suicidal Self-Injury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8, No4, pp.1171-1192, 2016.
- [4] J. J. Muehlenkamp, P. L. Kerr, "Untangling a complex web: how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e attempts differ", *The Prevention Researcher*, Vol.17, No1, pp.8-11, 2010.
- [5] K. Guan, K. R. Fox, M. J. Prinstein, "Nonsuicidal self-injury as a time-invariant predictor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in a diverse community samp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80, No5, 2012. DOI: <http://dx.doi.org/10.1037/a0029429>
- [6] S. Grandclerc, D. D. Labrouhe, M. Spodenkiewicz, J. Lachal, M. R. Moro, "Relations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PLoS one*, Vol.11, No4, 2016.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53760>
- [7] G. G. Chung, *Medic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between Adolescents' Stress, Self-Harm behavior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8]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22 Annual Report on Emergency Medical Statistics (Part 2. NEDIS Statistical Yearbook)*.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c2023 [cited 2023 October 26], Available From: [https://www.e-gen.or.kr/nemc/statistics\\_annual\\_report.do?brdclscd=02](https://www.e-gen.or.kr/nemc/statistics_annual_report.do?brdclscd=02)
- [9] S. H. Gye, (2023, April 29). A series of teenage youths choose extreme dramas... Number of consultations increased by 77% over 5 years. The Yu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079400530?input=1195m>
- [10] M. Adrian, J. Zeman, C. Erdley, L. Lisa, L. Sim,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nterpersonal difficulties as risk factors for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9, pp.389-400, April 2011. DOI: <http://dx.doi.org/10.1007/s10802-010-9465-3>
- [11] K. L. Gratz, "Risk Factors for Deliberate Self-Harm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ole and Interaction of Childhood Maltreatment, Emotional Inexpressivity, and Affect Intensity/Reactiv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76, No.2, pp.238-250, April 2010. DOI: <http://dx.doi.org/10.1037/0002-9432.76.2.238>
- [12] J. Woo, J. A. Wrath, G. C. Adams,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elf-injurious behaviors in the child and adolescent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26, No2, pp.406-427, August 2020. DOI: <http://dx.doi.org/10.1080/13811118.2020.1804024>
- [13] K. Bartholomew,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2, pp.226-244, 1991.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1.2.226>
- [14] J. M. Fuendeling, "Affect regulation as a stylistic process within adult attach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15, No3, pp.291-322, June 1998. DOI: <http://dx.doi.org/10.1177/0265407598153001>
- [15] C. Levesque, M. F. Lafontaine, J. F. Bureau, P. Cloutier, C. Dandurand, "The influence of romantic attach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9, pp.474-483, November 2009. DOI: <http://dx.doi.org/10.1007/s10964-009-9471-3>
- [16] K. L. Critchfield, K. N. Levy, J. F. Clarkin, O. F. Kernberg, "The relational context of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Using adult attachment style to predict forms of hosti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4, No. 1, pp.67-82, July 2008. DOI: <https://doi.org/10.1002/jclp.20434>
- [17] B. Gormley, D. E. McNeil,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self-directed aggression by psychiatric pati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34, pp.272-281, September 2009. DOI: <http://dx.doi.org/10.1007/s10608-009-9267-5>
- [18] A. Kent, G. Waller,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eating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0, No7, pp.887-903, October 2000. DOI: [http://dx.doi.org/10.1016/S0272-7358\(99\)00018-5](http://dx.doi.org/10.1016/S0272-7358(99)00018-5)
- [19] N. Garnefski, V. Kraaij, P. Spinhoven,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0, No8, pp.1311-1327, June 2001. DOI: [http://dx.doi.org/10.1016/S0191-8869\(00\)00113-6](http://dx.doi.org/10.1016/S0191-8869(00)00113-6)
- [20] P. Fonagy, G. Gergely, E. L. Jurist, M. Target,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448, Karnac Books, 2004, pp.291-316 DOI: <https://doi.org/10.4324/9780429471643>
- [21] R. Tatnell, P. Hasking, L. Newman, "Multiple mediation modelling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specific aspects of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Vol.70, No1, pp.46-56, Published online November 2020. DOI: <http://dx.doi.org/10.1111/ajpy.12166>

- [22] C. Levesque, M. F. Lafontaine, J. F. Bureau,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nd dyadic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mantic attachment and non-suicidal self-inju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6, No.2, pp.277-287, Feb.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6-0547-6>
- [23] S. H. Kim,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51-53.
- [24] Y. R. Cho, "Evaluation of Emotional Difficult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Scale in English",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6, No4, pp.1015-1038, 2007.  
DOI: <https://doi.org/10.15842/kjcp.2007.26.4.012>
- [25] H. J. Kwon, Exploration of emotional and 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non-suicidal self-injur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70-73.
- [26]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494, The Gilford press, 2023, pp.3-427.
- [27] P. Fonagy, G. Gergely, M. Target, "The parent-infant dyad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ubjective self",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8, No3-4, pp.288-328, March 2007  
DOI: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7.01727.x>
- [28] K. A. Brennan, P. R. Shaver,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ity disorders: Their connections to each other and to parental divorce, parental death, and perceptions of parental caregiving", *Journal of Personality*, Vol.66, No5, pp.835-878, January 2002.  
DOI: <https://doi.org/10.1111/1467-6494.00034>
- [29] J. Cassidy,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59, No2-3, pp.228-249, February 1994.  
DOI: <https://doi.org/10.1111/j.1540-5834.1994.tb01287.x>
- [30] M. Wei, D. L. Vogel, T. Y. Ku, R. A. Zakalik,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2, No1, pp.14-24,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52.1.14>
- [31] P. R. Shaver, M. Mikulincer,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l.4, No2, pp.133-161, October 2010.  
DOI: <https://doi.org/10.1080/14616730210154171>
- [32] S. G. Kim, B. H. Kim, "Exploring the Meaning of Repeated Self-injurious Behavior in Youth Client: to endure the pain with suffer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7, No2, pp.231-250, 2015.
- [33] S. Wright, A. Day, K. Howells, "Mindfulness and the treatment of anger problem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14, pp.396-401, 2019.  
DOI: <https://doi.org/10.1016/j.avb.2009.06.008>

백 성 은(Sung-Eun Bae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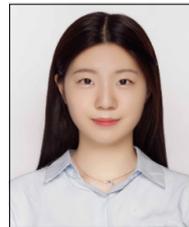
- 2021년 2월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6년 3월 ~ 2021년 2월 : 서강대학교 열린상담소 책임연구원
- 2021년 3월 ~ 현재 :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부모-자녀 관계, 정신건강 선별 검사

한 지 혜(Ji-Hye Han)

[준회원]



- 2020년 3월 :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입학
- 2023년 2월 :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졸업예정
- 2023년 3월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입학예정

<관심분야>

부모-자녀 관계, 아동상담